

중 우한폐렴 사망자 100명 넘어 '공황상태'

확진자도 4515명 급속 증가 하루 새 사망 26명·확진 1771명 ↑ 춘제 연장 '이동 자제령'... 개학 연기

중국 지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전면에서 나서 독려에 나서고 있지만 사망자가 하루 사이 급증하며 겹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우한 폐렴' 저지를 위한 대국민 동원을 호소하고 리커창 총리가 발병자인 우한을 시찰하며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미 퍼질 대로 퍼진 바이러스를 단기간에 잡기에는 늦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중국 정부는 춘제(중국의 설) 연장 속에 사실상 지역 간 '이동 자제령'을 내리고 교통 봉쇄, 개학 연기 등 극약 처방을 통해 '우한 폐렴'의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28일 0시 현재 전국 30개 성에서 '우한 폐렴' 확진자는 4515명, 사망자는 106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하루 전보다 확진자는 1771명, 사망자는 26명 늘어난 것으로, 사실상 '우한 폐렴'의 확산이 예상보다 매우 빠르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날 사망자는 후베이성에서 24명, 허난성에서 1명이 나왔고 베이징에서도 1명이 발생해 중국의 수도 방역 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로 인해 발병자인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에만 확진자가 2714명으로 늘었고 이 지역 사망자도 100명에 이르러 우한발 공포심이 중국 전역을 덮고 있다. 이 가운데 우한 폐렴의 전염자인 우한의 사망자는 85명이다.



마스크 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의료기관인 서울 중국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기현 원장과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내 우한 폐렴 확진자 가운데 976명은 중증이며 60명은 완치 후 퇴원했다. 의심 환자는 6973명에 달한다. 현재까지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 수는 4만 7833명으로 이 가운데 4만4132명이 의료 관리를 받고 있다. 이밖에 중화권인 홍콩에서 8명, 마카오에서 7명, 대만에서 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해외의 경우 확진자는 태국 8명, 미국·싱가포르·호주 5명, 일본·한국·말레이시아 4명, 프랑스 3명, 베트남·캐나다·네덜·독일·스리랑카 1명 등이다.

한편, 오는 30일로 끝나는 춘제가 내달 2일로 전격 연기된 가운데 베이징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도시 간 도로를 통한 여객 운송이 사실상 봉쇄됐고 기차와 항공기만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우한이나 후베이성 지역과 연결되는 기차, 항공기는 중단됐고 각 지역 정부는 "춘제에 집에만 있으라"며 사해 인사 방문, 연회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나섰다. 중국 교육부 또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개학 연기를 공식 발표해 최소 2월 17일까지는 중국 전역의 모든 학교가 일제히 문을 닫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부, 우한에 30~31일 전세계 4차레 급파...한국인 700명 수송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사실상 고립된 한국인 700여명의 국내 송환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전세기 4차례 급파한다.

이태오 외교부 2차관은 28일 서울 중로구 도림동 정부 종합청사 별관에서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재외국민과 유학생 등 국민보호를 위해 우한시에 전세기 4

편을 투입하여 귀국을 지원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귀국을 희망하는 수를 파악한 결과 700여명 수요가 파악돼 1월 30일, 31일 이틀간 우한시에 전세기 파견을 결정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날짜는 중국 측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

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과 조치계획, 우한 체류 국민 전세기 수송·감염 방지 방안, 무증상자 임시생활시설 운용방안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탑승 전 국내에서 파견된 검역관의 철저한 검역을 거친 뒤 비행기에 탑승하게 된다. 귀국 후에는 국내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 교육시설에서 임시로 생활하게 된다. 정부는 또 이번 전세기를 통해 마스크 200만 개, 방호복·보호경 각 10만 개 등 의료 구호 물품을 중국 측에 우선 전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중 전문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스보다 전파 속도 빠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평즈젠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부주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지난 27일 밤 중국중앙방송(CC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말했다.

평 부주임은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염 능력은 비교적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염능력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상응한다면서 "평균적으로 환자 1명이 2~3명을 전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 '배증시간'이 사스보다 짧다"고 말했다. 바이러스가 2배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적다는 설명이다.

평 부주임은 이 배증시간에 대해 사스는 9일 안팎이지만 신종 코로나는 대략 6~7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진 건수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고 그는 말했다.

사스 때는 첫 발병이 11월 중순이었고 이듬해 4월 18일 환자가 1800명이었다. 반면 신종 코로나는 지난해 12월 8일에 첫 환자가 나왔고 40여일 뒤인 이달 22일 571명에 이르렀으며 500명이 더 늘어나는 데는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난 24일 1000명을 돌파한 지 이틀



뒤인 지난 26일에는 2000명을 넘어섰고 27일 하루에만 새로운 확진자가 1700명을 초과했다. /연합뉴스

전남도 승마산업 인프라 구축 경쟁력 강화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4개 분야 742억원 투입

전남도가 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까지 4개 분야 74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바닷가, 해안선, 섬 등 전남 지역의 우수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전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승마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6개 세부 추진목표를 설정했다.

이 계획에 따라 사육두수를 지난해 738두에서 2024년 2000두까지 늘리고, 승마 시설도 31개소(2019년)에서 2024년까지 40개소를 더 확충할 계획이다. 유소년 승마단의 경우 지난해 8개소에서 2024년까지 15개소로, 학생승마 역시 연간 1만명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말 사육능가 육성을 위해서는 말 사육환경 개선 및 번식용 승마마 구입비 용자 지원 등 3개 사업에 86억원, 승마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승마시설 확대, 말산업 특구, 말 힐링 북

합공간 조성 등 5개 사업에 446억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승마 대중화를 위해 206억원을 들여 초·중·고 학생승마체험,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승마대회 개최, 승마교실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 말산업은 2000년 이후 정부 말산업 육성방향에 승마산업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승마장 설치, 학생승마체험 위주의 승마산업 기반을 조성했으나 말 사육두수가 738두에 불과하고, 승마 인구나 말 관련 업체(조련업, 경매업) 수가 적어 제주도, 경기도 등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다.

전남도는 전남의 리아스식 해안 등 자연 경관이 우수한 장흥, 신안 등 서해안권 이운 가족이 말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복합 힐링 관광 조성지의 최적지로 판단하고, 말 힐링 복합 공원 조성사업(사업비 200억원)을 국고 신규사업으로 발굴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윤현석 기자 chadot@kwangju.co.kr

광주 사직공원에 야외 상설공연장

200억 들여 900석 규모...2022년 말 완공 계획

광주 양림동 사직공원에 상설 공연장이 들어선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사직공원 내 옛 수영장 부지에 야외 상설 공연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용역과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009년 공원시설 변경 결정을 통해 수영장 부지에서 영상 예술공연장으로 계획이 바뀐지 10여년 만이다.

2500㎡규모의 부지에 국비와 시비 100억원씩 200억원을 들여 780~915석 규모 공연장을 만들 계획이다. 광주시는 심의를 마치고 4~5월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설계 용역비 4억4000만원은 올해 국비로 확보한 바 있다.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 2022년까지 사

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직공원은 안전과 풍년을 기원하며 제사를 올렸던 사직단이 있던 곳으로 1960년대 말 동물원, 수영장, 놀이 시설이 들어서면서 도심 휴식 공간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1991년 동물원을 우치공원으로 옮기면서 쇠락한 뒤에는 통기타 음악을 선보이는 카페 등 음악의 거리를 명맥을 유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연장이 들어서면 포크 음악뿐 아니라 다양한 공연이 활발하게 선보여 도심 명소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인근 문화자원과도 연계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3월부터 보육지원 정책 확대

광주시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정책을 확대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3월부터 달라지는 보육 정책·제도로 기존 어린이집 운영 체계가 맞춤형·중일반에서 기본 보육·연장 보육으로 변경된다.

오후 4시까지는 기본 보육, 그 이후에는 전담 교사가 배치돼 연장 보육이 이뤄진다. 만 3~5세 대상 누리 보육 과정은 놀이·유아 중심, 현장 자율성 확대 방침에 따라 개편되고 어린이집 아동의 등·하원 부

조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 출결 시스템도 도입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19곳에서 22곳으로 확대되고, 24시간 긴급 아이 돌봄 센터는 하반기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된다.

이웃끼리 '뽕이 뽕'을 실천하는 공동 육아 나눔터도 6곳에서 7곳으로 늘어난다. 교사가 배치된 연장 보육이 이뤄진다. 만 3~5세 대상 누리 보육 과정은 놀이·유아 중심, 현장 자율성 확대 방침에 따라 개편되고 어린이집 아동의 등·하원 부

조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 출결 시스템도 도입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19곳에서 22곳으로 확대되고, 24시간 긴급 아이 돌봄 센터는 하반기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020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30기)	광주교육대학교(21기)
모집/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요일 오전반 2020. 3. 6(금) 09:10 (중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20. 3. 7(토) 09:10 (고급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요일 오후반 2020. 3. 6(금) 14:10 (중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20. 3. 7(토) 14:10 (고급반)
모집기간	2020. 1. 23(목) ~ 3. 7(토)	
수업기간	2020. 3. 6(금) ~ 2020. 8. 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 ~ 13:00 · 오후반 14:10 ~ 18:00	
수료 후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 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 ~ 사범) 취득 기회 부여 	
수강료	₩ 360,000(예금주: 광주여대) · 광주은행: 148-107-307803	₩ 360,000(예금주: 광주교대) ·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의: 062)950-3582-4 ·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p>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의: 062)520-4243 ·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p>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p>

요양병원,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율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20억포함)

힐링센터 공동투자자 모심

- 개인명의 재산을 법인으로 100% 전환 후 지분 50:50
- 공동대표 등기 후 투자자께서 100% 운영
- 투자금액 13억5천만원 (힐링센터 시설 리모델링 비용)

소유자 : 010-7570-7525
(나주시 남평읍 풍림죽림길 8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아파트 행암동 제일풍경채 16층 94㎡ 조망 일조권 최고 3억3700
- 카페 등 적합 화순 도곡면 효산리 땅 940㎡ 집 92㎡ 4억6천
- 아파트 월산동 제일파크 6층 정남향 리모델링 완료 즉시입주 1억1800
- 부구 임동 소방도점 주차터 298㎡ 원룸 등 적합 4억6500
- 서구 양동 광주천면 부근 상업지 땅 347㎡ 다세대 원룸 등 적합 5억5600
- 담양 월산동 월계리 대지 등 2268㎡ 전원생활 적합 교환가능 1억5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해안도 인근 1130㎡ 전당 출몰 1억3천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땅 664㎡ 주택 124㎡ 4억3천 전용 생활 적합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업지 706㎡ 무인텔 등 적합 교환가능 2억
- 목포시 외달도(달동) 329평, 638평 투자전매최고 평당 23만원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휴시설·참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약국용 건물과 교환 가능 20억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참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산10000㎡ 사찰 화가 화실·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상 가 건 물

- 백양사와 내장사 사이 추령고개 땅 403㎡ 가게 197㎡ 커피숍·편의점 적합 1억3000
- 서석동 조대앞 4층 상가 땅 405㎡ 건물 919㎡ 임대 보증금 6천 월 280, 12억
- 충장로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200 매도 26억
- 월산동 농성초교 도로점 땅 190㎡ 2층 상가주택 185㎡ 매도 3억
- 운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부구 임동 모델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 급 물 건

- 목포시 대양동 1종주거지 4121㎡ 투자·다세대 등 적합 7억2천
- 무안군 삼향읍(전남도청 건너편) 신세계 프라자 1층 67㎡ 지영업 적합 4억4천
- 구례군 구례읍 서시천변(광의면) 11050㎡ 빌라·요양시설 적합 14억
- 화순군 동면 서성제 별장 대물교환 가능 은행 3억 전세 있고 매도는 6~7억
- 나주시 남대동 상업지 959㎡ 마트·식당·다구 적합 은행 5억 교환가능 9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